

# 뉴스 기사 제목에 나타난 ‘○○女’ 와 ‘○○男’ 의 사용 양상 비교: 1990–2021년 사회면 기사를 중심으로

박수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 1 서론

2015년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아래로 사회 곳곳의 여성혐오를 조명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중 하나로 기사 제목에 ‘트렁크녀’, ‘고소녀’ 등 ‘○○녀’ 를 남발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2016년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비판의 전제는 언론 보도에서 ‘○○녀’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계량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사 제목에 포함된 ‘○○녀’ 의 개수를 실제로 세어 보고 ‘○○녀’ 현상의 존재 여부와 그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0년부터 현재 까지의 사회면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女’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를 알아보고, 연도별로 세어 본 결과를 ‘○○男’ 과 비교함으로써 ‘○○녀’ 의 사용이 어느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 2 선행 연구

우선 ‘○○녀’ 및 ‘○○남’과 같이 특정 성별을 지칭하거나 묘사하는 표현을 비교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구현정 (1995)에서는 남성형 어휘와 여성형 어휘의 분포를 비교하였고, 민현식 (1996)에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쓰이는 어휘를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사전 표제어를 대상으로 삼아 어떤 어휘가 존재하는지를 보이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단어의 쓰임을 알기 위해서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세어 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정복 (2010)에서 김여사-김기사, 오크녀-오크남 등을 각각 포함하는 게시물의 수를 집계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남’ · ‘○○녀’와 관련된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모두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녀’ 현상에 대한 비판이 언론 보도를 위주로 이루어진 만큼, 본 논문에서도 뉴스 기사 제목을 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정여훈 (2006)과 김관규·김진원 (2010)을 참조하여 사회면 기사를 대상으로 삼아 ‘○○남’과 ‘○○녀’의 쓰임을 정보전달형과 관심유도형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용이한 검색을 위해 ‘○○남’과 ‘○○녀’를 ‘○○男’과 ‘○○女’로 한정하여 집계한다. 이는 황종인 (199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사 제목에서 1음절 한자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3.1 자료 수집

한국어 뉴스 기사 제목에 나타난 ‘○○女’와 ‘○○男’의 쓰임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를 통해 기사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1에서 열거한 총 54개 언론사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발행된 사회면을 대상으로 한자 ‘女’나 ‘男’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하였다.

유형	언론사 목록 (54개)
중앙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종합지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방송사	KBS, MBC, OBS, SBS, YTN
전문지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표 1: 빅카인즈에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의 목록

구체적인 검색 방법은 그림 1의 화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男’이나 ‘女’를 포함하는 기사를 찾기 위해 검색어를 ‘男 OR 女 OR 女’로 입력하였다.<sup>1</sup> 다음으로는 검색

<sup>1</sup>검색어를 작성할 때 ‘女’로 보이는 한자를 두 번 입력한 이유는 女(유니코드명 CJK COMPATIBILITY IDEOGRAPH-F981)와 女(유니코드명 CJK UNIFIED IDEOGRAPH-5973)가 유니코드 인코딩에서 별개의 문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는 두 한자를 서로 다른 문자로 인식하므로 두 글자를 별개로 입력해 주어야 ‘女’가 포함된 기사를 다 찾을 수 있다. 한자 ‘男’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을 지정하는데, 결과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기사 개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31년치를 한꺼번에 찾지 않고 1991년부터 2020년까지는 2020-01-31~2020-12-31 와 같이 1년 단위로, 2021년은 2021-01-01~2021-09-30처럼 9개월 분량으로 끊어서 검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면 기사를 얻기 위해 통합 분류로 ‘사회’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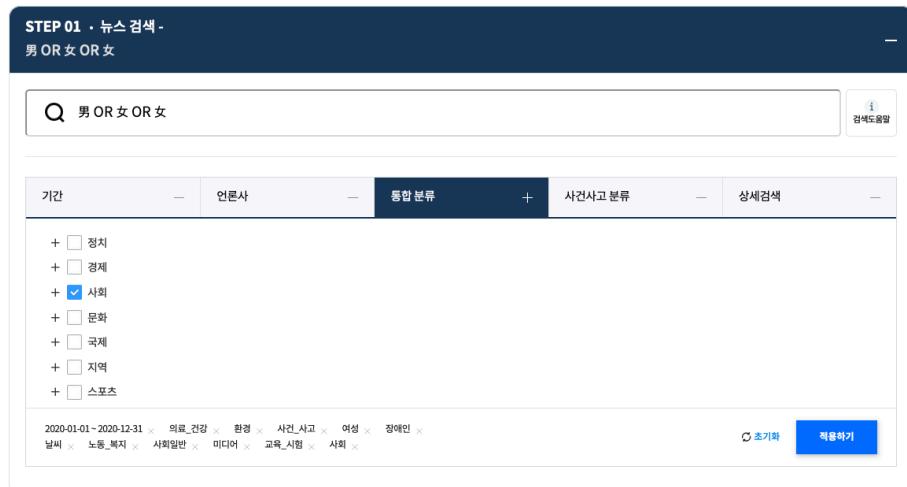


그림 1: 빅카인즈 뉴스 검색 화면

검색 결과에서 ‘女’나 ‘男’이 제목에 나타나지 않고 본문에만 나타난 것을 제외한 결과, 제목에 ‘女’나 ‘男’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기사로 모두 80,129개를 얻었다. 80,129개 기사의 언론사별 분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 3.2 빈도 계산

검색 조건에 맞는 기사 제목을 모두 수집하여 자료를 구축했으므로, 이제 이 자료에서 ‘男’이나 ‘女’가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사 개수, 출현 횟수, 어휘 가짓수로 총 세 가지 척도를 설정하였다.

- 기사 개수(Document frequency): ‘男’을 제목에 포함한 기사의 개수.
- 출현 횟수(Token frequency): ‘男’이 제목 전체에서 출현한 횟수. 하나의 기사 제목에서 여러 번 쓰인 경우 각각을 모두 센다.
- 어휘 가짓수(Type frequency): ‘男’이 쓰인 표현의 가짓수. 같은 표현이 중복해서 나타난 경우 한 가지로 간주한다.

이 세 가지 척도를 통해 제목에 ‘男’과 ‘女’를 사용한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男’과 ‘女’를 포함하는 표현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男’과 ‘女’를 포함하는 표현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

하나의 자료에서 세 가지 빈도가 각기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표 2에 제시한 샘플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ID	제목
A1	북한산 비봉에서 50대女 추락... 헬기로 이송
A2	이웃집 봐준다더니 1400만원 가로챈 50대女
A3	권위적인 7대 <u>종손男</u> vs <u>낭비녀</u> 이혼 책임은?
A4	70대男, 공업용 커터칼로 친동생 얼굴 베고 ‘징역 1년6월’
A5	‘선릉역 사건’ <u>가해女</u> , <u>피해女</u> 만남 전 흥기 쟁기 이유는? 친구 데려온다는 말에
A6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첫 완치 사례 나와 70대男 11월 퇴원

표 2: 기사 제목 데이터 샘플

실제 데이터에서 임의로 기사를 추출한 이 샘플 데이터에서 ‘男’은 A3, A4, A6 세 개의 기사에 사용되었고, 기사 제목 전체에서 ‘종손男’, ‘70대男’, ‘70대男’로 세 번 출현했으며, ‘男’이 사용된 표현은 ‘종손男’과 ‘70대男’로 두 가지이다. ‘女’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 계산한 ‘男’·‘女’의 세 가지 빈도의 값은 표 3으로 요약 가능하다.

	기사 개수 Document frequency	출현 횟수 Token frequency	어휘 가짓수 Type frequency
男	3	3	2
女	4	5	4

표 3: 표 2의 샘플 데이터에서 계산한 ‘○○男’과 ‘○○女’의 빈도

이제 수집한 기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분류한 뒤 세 가지 빈도의 값을 계산하여 ‘○○男’과 ‘○○女’의 양적인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4 성별 표현의 유형 분류

### 4.1 형태에 따른 분류

앞 절에서 제목에 ‘男’ 또는 ‘女’가 들어가는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 이터에서 ‘男’과 ‘女’가 제목에 쓰이는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크게 자립형태소로서 단독 어절을 이루는 경우와 접사로서 명사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과 (2)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 (1) 신문 기사 제목에 ‘男’ 을 포함한 경우
  - a. 자립으로 쓰인 예: “내 집인 줄 알고” 이웃집 들어가 성추행한 男
  - b. 접두사로 쓰인 예: “트럭도 불끈 들어올린다” 여성 위한 첫 男리얼돌 출시 논란
  - c. 접미사로 쓰인 예: ‘아몰랑’ ‘김치녀’ 여성혐오男, 실생활에선 ‘루저’
- (2) 신문 기사 제목에 ‘女’ 를 포함한 경우
  - a. 자립으로 쓰인 예: ‘강제 키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잘리게 한 女 정당 방위 인정
  - b. 접두사로 쓰인 예: 반월공단 도로변 女변사체
  - c. 접미사로 쓰인 예: 검-경, ‘성추문 피해女’ 사진유출 이번엔 ‘공조수사’

이러한 형태상의 특징에 따라 기사의 수를 집계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女’의 사용 양상을 ‘○○男’와 비교하는 데 있으므로, ‘男’·‘女’ 한자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접두사로 쓰인 경우는 제외하고 접미사로 쓰인 기사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자	제목에 해당 한자를 포함하는 기사 개수	자립형태소로 사용 한 기사 개수	접두사(男·女○○)로 사용한 기사 개수	접미사(○○男·女)로 사용한 기사 개수
男	33628	11107	4164	17582
女	53272	12382	21334	17828

표 4: ‘男’ 과 ‘女’ 의 형태소 유형별 기사 개수 (54개 언론사 통합검색)

한편, 표 4를 관찰하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 제목에 여성을 명시하는 경우가 남성을 명시하는 경우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상으로도 ‘女’를 포함한 기사(53,272 개)가 ‘男’을 포함한 기사(33,628개)보다 약 1.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의 값들을 비교해 보면 ‘男’과 ‘女’의 차이는 대부분 접두사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립형태소와 접미사의 경우는 차이가 매우 근소하다. 즉,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男’과 ‘○○女’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4.2 내용에 따른 분류

그렇다면 통념과 달리 ‘○○女’가 ‘○○男’과 비슷한 빈도로 사용된 것일까? 이를 위해 ‘男’와 ‘女’가 접미사로 사용된 기사의 개수를 세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들 어미와 결합한 어기에 대해 살펴보자.

- (3) 연령 표현 예시: 60대男, 30대女
- (4) 비연령 표현 예시: 주포男, 풀팅女

위의 예문 및 실제 데이터에서 기사를 임의로 추출한 표 2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男’과 ‘○○女’의 상당수는 ‘70대男’, ‘50대女’와 같이 인물의 연령과 성별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용례는 사실을 서술하는 정보전달형 제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접미사 ‘-男’과 ‘-女’가 연령 표현을 제외한 명사 어기와 결합한 경우는 사전 표제어로 존재하는 단어라기보다 주로 신조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연령 표현은 김관규·김진원 (2010)에서 분류한 조어형으로서 관심유도형 제목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반영하기 위해 ‘○○男’과 ‘○○女’를 숫자가 들어간 연령 표현과 명사 어기와 결합한 비연령 표현으로 분류하여 출현 횟수를 세어 보면 표 5와 같다.

	연령 표현 출현 횟수	비연령 표현 출현 횟수	전체 표현 출현 횟수
○○男	10890(74.36%)	3755(25.64%)	14645(100.00%)
○○女	9142(61.00%)	5845(39.00%)	14987(100.00%)

$\chi^2 = 603.06, df = 1, p < 2.2 \times 10^{-16}$

표 5: ‘○○男’과 ‘○○女’의 어기 유형별 분류

이 표에서 살펴보면 ‘○○男’에서 연령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女’보다 높고, 비연령 표현만을 놓고 보면 ‘○○女’의 개수(5,845)가 ‘○○男’(3,755)보다 1.55배 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령 표현을 제외한 조어형에서 ‘○○女’와 ‘○○男’ 사이의 양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男’과 ‘女’의 쓰임을 형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연구 대상을 접미사로 한정한 뒤 어기의 종류에 따라 출현 횟수를 세어 보았다. 다음으로는 접미사 중에서도 비연령 표현에 초점을 두어 ‘○○男’과 ‘○○女’의 쓰임을 연도별로 집계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 5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이 절에서 ‘○○男’과 ‘○○女’는 접미사 ‘-男’과 ‘-女’가 연령 표현을 제외한 명사 어기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를 가리킨다. 각 소절에서는 3.2에서 도입한 세 가지 척도의 값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화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 5.1 성별 접미사를 포함하는 기사 제목의 추세 변화

#### 5.1.1 절대 빈도

앞서 ‘○○男’과 ‘○○女’를 제목에 사용한 사회면 기사의 개수를 표 4에서 세어 보았다. 여기에서는 ‘○○男’과 ‘○○女’ 중에서도 비연령 표현을 사용한 기사를 연도별로 분류한 뒤 세어보자. ‘○○男’과 ‘○○女’의 절대 빈도를 아래의 식으로

정의하면, 연도별 절대 빈도의 값은 표 6과 같이 집계된다.

(‘○○男’의 절대 빈도) = (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男’을 포함한 것들의 개수)

(‘○○女’의 절대 빈도) = (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女’를 포함한 것들의 개수)

연도	男	女	연도	男	女	연도	男	女	연도	男	女
1990	3	7	1998	8	15	2006	37	65	2014	225	366
1991	0	3	1999	9	17	2007	42	39	2015	230	345
1992	4	18	2000	9	19	2008	61	71	2016	269	389
1993	2	15	2001	30	35	2009	81	88	2017	206	202
1994	1	2	2002	31	32	2010	125	166	2018	135	129
1995	10	13	2003	35	42	2011	112	212	2019	150	170
1996	0	12	2004	47	68	2012	277	471	2020	160	109
1997	9	14	2005	38	48	2013	240	525	2021	206	193

표 6: 제목에 ‘○○男’ 및 ‘○○女’ 을 포함하는 기사 개수 (연도별)

그림 2는 표 6를 꺾은선그림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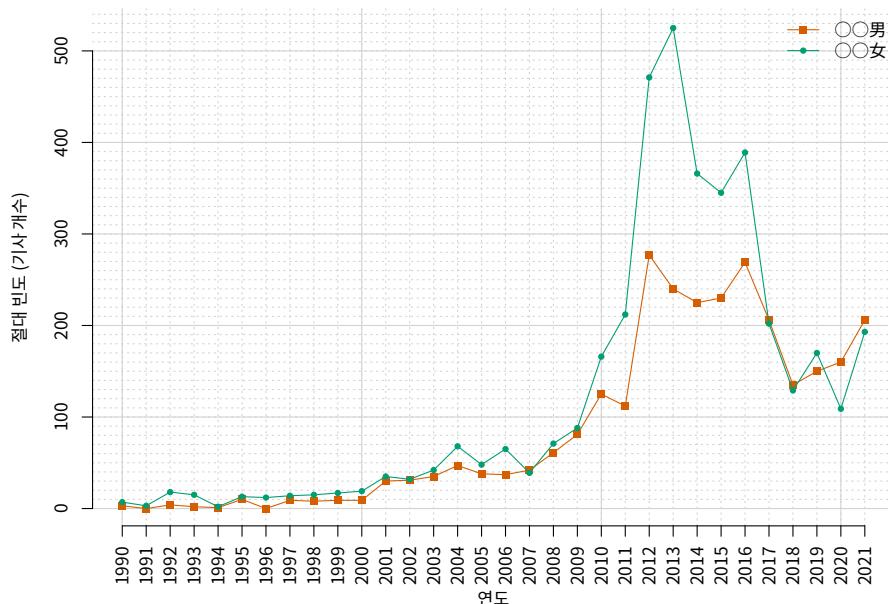


그림 2: ‘○○男’ 및 ‘○○女’ 를 포함한 기사 개수의 연도별 변화

그림을 살펴보면 ‘○○男’과 ‘○○女’가 모든 연도에 골고루 비슷하게 사용된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는 기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000년 이후로

서서히 늘어나면서 2012년에서 정점에 달했다가 2016년 이후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 뒤 2021년에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였다.

### 5.1.2 상대 빈도

그런데 위에서 구한 절대 빈도로 두 표현의 사용량 변화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정 연도에 기사가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제목에 ‘○○男’이나 ‘○○女’를 포함한 기사의 개수도 함께 많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대 빈도를 도입하였다.

$$(\text{‘○○男’의 상대 빈도}) = \frac{(\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男’을 포함한 것들의 개수})}{(\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전체 개수})}$$

$$(\text{‘○○女’의 상대 빈도}) = \frac{(\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女’를 포함한 것들의 개수})}{(\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전체 개수})}$$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 빈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발행된 사회면 기사 전체의 개수가 필요하다. 이는 표 7로 제시하였다.

연도	기사 개수						
1990	98365	1998	182623	2006	285432	2014	754001
1991	105687	1999	213311	2007	308670	2015	838354
1992	113363	2000	253960	2008	448780	2016	760213
1993	124499	2001	285075	2009	608961	2017	804948
1994	137070	2002	287957	2010	627705	2018	793602
1995	160573	2003	298460	2011	678646	2019	829297
1996	164522	2004	318357	2012	671944	2020	901383
1997	176536	2005	321978	2013	716736	2021	626060

표 7: 연도별로 발행된 사회면 기사 개수

표 7에서 얻은 값을 반영하여 상대 빈도를 계산한 결과를 꺾은선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를 통해서 ‘○○男’ 또는 ‘○○女’를 제목에 사용한 기사가 매년 발행된 사회면 기사 중에서 어느만큼의 비율을 차지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우선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2–1993년의 ‘○○女’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0.01% 미만의 비율을 보인다. 1990년대에 사회면 기사 제목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14.6%에서 1996년 8.8%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동환 1996), 한자 ‘男’과 ‘女’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심지어 2000년 이후에는 더욱 늘어났다.

2000–2001년 사이에 ‘○○男’과 ‘○○女’ 모두 예전보다 증가하여 0.01%를 초과하였고, 이후로 2000년대 내내 계속 1990년대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이 시기부터 ‘딸녀’(2003년), ‘된장녀’, ‘개똥녀’(2005년) 등 ‘○○녀’ 꼴의 신조어가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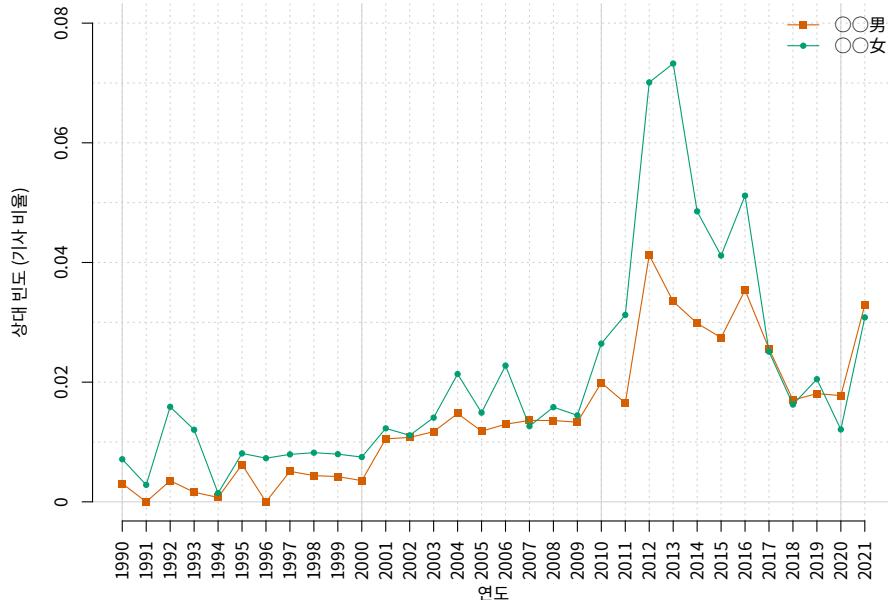


그림 3: ‘○○男’ 및 ‘○○女’를 포함한 기사 비율의 연도별 변화

계시판과 댓글에서 만들어지고 주목받았다.<sup>2</sup>

뉴스 기사 제목에서는 2010년에 들어서서 ‘○○男’과 ‘○○女’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특히 2012~2016년 구간은 절대 빈도를 상대 빈도로 보정한 후에도 다른 기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매년 발행된 기사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女’와 ‘○○男’를 포함하는 기사의 비중은 그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의 ‘○○녀’ 사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2016년이 지나면 곡선이 가파르게 떨어진다. 이후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1년에 들면서 다시 큰 폭으로 솟아오른다.

그림 3를 다시 관찰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구간에서 ‘○○女’의 꺾은선과 ‘○○男’의 꺾은선이 서로 평행하게 움직여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두 표현의 증감 추세가 대부분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제목에 ‘○○女’를 쓴 기사가 늘어난 해에는 ‘○○男’ 또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女’와 ‘○○男’이 함께 증가했다면, ‘○○녀’의 사용만을 주목하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sup>3</sup>

<sup>2</sup><2003년 ‘딸녀’ 2012년 ‘대변녀’… ‘○○녀’ 10년 질곡사>.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27일 18시 48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2042713221119178>

<sup>3</sup>주창윤 (2011)에서는 ‘○○녀’가 먼저 늘어난 뒤 ‘○○남’이 따라서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5.2 성별 접미사 표현의 비율 변화

5.1소절에서는 기사의 상대 빈도를 통해 뉴스 기사 제목에서 ‘○○女’가 증가할 때 ‘○○男’이 함께 증가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여기에서는 두 표현이 실제로 출현한 횟수를 세어 보고 ‘○○女’와 ‘○○男’의 사용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두 표현의 출현 횟수를 집계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모자이크그림으로 시작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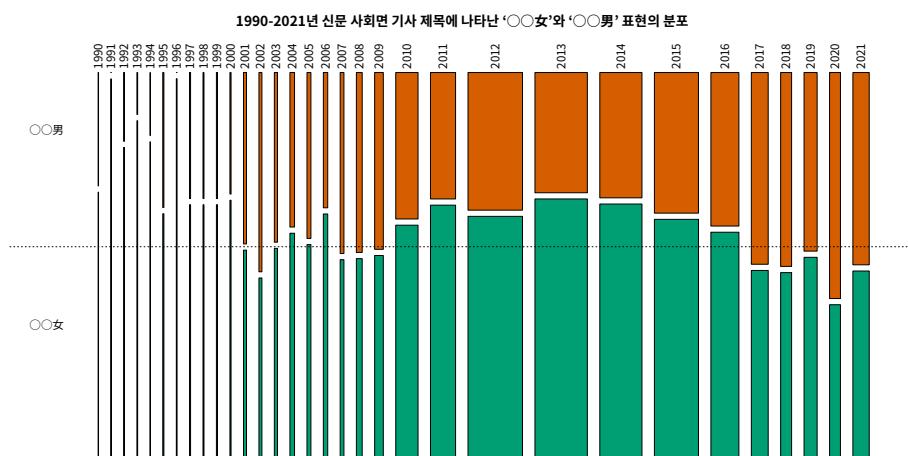


그림 4: ‘○○男’ 및 ‘○○女’의 출현 횟수의 연도별 분포

그림 4의 모자이크그림에서는 길이가 일정하고 폭이 서로 다른 막대를 나란히 배열하였다. 막대 하나가 1년을 가리키며, 막대의 폭이 넓을수록 그 해에 ‘○○男’과 ‘○○女’의 사용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그림 3에서 꺾은선의 위치가 높을수록(기사의 상대 빈도 값이 클수록) 그림 4에서 막대의 폭이 넓어지나(표현의 출현 횟수도 많아지나), 2015–2016년 사이에 기사의 상대 빈도가 증가하되 출현 횟수는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으므로 두 척도를 별도로 살펴본다.

모자이크그림의 각 막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위쪽이 ‘○○男’, 아래쪽이 ‘○○女’의 출현 횟수에 해당한다. 32개 막대를 가로지르는 점선은 중간 지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막대가 끊어지는 지점이 점선보다 위에 있다면 ‘○○女’가 ‘○○男’보다 많이 사용된 것이고, 점선보다 아래에서 끊어진다면 반대로 ‘○○男’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관찰하면 1990년대에는 ‘○○女’의 출현 횟수가 ‘○○男’보다 많았고, 200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두 표현의 출현 횟수가 비슷한 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격적인 차이는 2010년 두 표현의 출현 횟수의 총합이 크게 증가하면서부터 드러난다. 막대의 폭이 다른 기간보다 넓은 2010–2016년 구간에서는 일관되게 ‘○○女’가 ‘○○男’보다 빈번하게 출현하였

다.<sup>4</sup> 그러므로, ‘○○女’와 ‘○○男’이 특정 기간에 함께 늘어났더라도 ‘○○女’의 사용량이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6년까지 ‘○○녀’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추가로 주목할 점은 2016년 이후 최근의 분포이다. 그림 3에서는 2017–2021년 구간에서 두 성별 표현의 사용량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림 4에서는 이 기간에 ‘○○男’이 ‘○○女’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으로 후속 연구를 요한다.

### 5.3 성별 접미사 표현의 가짓수

마지막으로, 표현의 가짓수를 통해 2012–2016년 사이 ‘○○女’의 우세와 2017–2021년 사이 ‘○○男’의 우세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출현 횟수는 소수의 고빈도 표현에 좌우될 수 있다. 즉, ‘고소女’ 등 일부 특정한 표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女’의 출현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男’과 ‘○○女’의 가짓수를 집계하여 표 8로 제시하였다.

연도	○○女	○○男	女/男비	연도	○○女	○○男	女/男비
1990	4	3	1.33	2006	43	28	1.54
1991	5	0	—	2007	36	35	1.03
1992	11	2	5.5	2008	43	37	1.16
1993	11	2	5.5	2009	80	57	1.40
1994	4	1	4	2010	190	120	1.58
1995	9	5	1.8	2011	195	131	1.49
1996	11	0	—	2012	317	241	1.32
1997	8	4	2	2013	317	208	1.52
1998	7	5	1.4	2014	272	181	1.50
1999	7	5	1.4	2015	284	205	1.39
2000	10	8	1.25	2016	202	176	1.15
2001	18	17	1.06	2017	112	132	0.85
2002	17	12	1.42	2018	78	93	0.84
2003	27	25	1.08	2019	84	94	0.89
2004	47	29	1.62	2020	65	94	0.69
2005	44	35	1.26	2021	107	112	0.96

표 8: ‘○○女’와 ‘○○男’의 어휘 가짓수와 비율

표 8를 살펴보면 2012–2016년에는 ‘○○女’의 가짓수가 ‘○○男’보다 많고, 2017–2021년에는 반대로 ‘○○男’의 가짓수가 더 많다. 출현 횟수가 높은 구간과 표현 가짓수가 높은 구간이 일치하므로, 5.2소절에서 관측한 결과가 단순히 소수의 고빈도 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sup>4</sup>단, 이정복 (2010)에서 포털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을 대상으로 보고한 것과 달리, 기사 제목에서는 ‘○○녀’의 사용량이 ‘○○남’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기사 제목에 나타난 ‘○○女’와 ‘○○男’의 사용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199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어 뉴스 사회면 기사를 수집하고 ‘○○男’·‘○○女’의 사용량을 집계하는 세 가지 척도를 제시하였다. 4절에서 처음에 31년 9개월치 자료를 한꺼번에 집계했을 때는 ‘○○女’의 사용량이 ‘○○男’과 비슷해 보였으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연령 표현을 제외하면 ‘○○女’의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5절에서는 비연령 표현이 포함된 기사를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2~2016년 사이에는 기사 제목에서 성별 접미사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해 다른 기간에 비해 특히 높았고, ‘○○女’가 ‘○○男’보다 더 빈번하고 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성별 접미사 표현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이전과 반대로 ‘○○男’이 더 빈번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현상을 관측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2012~2016년의 ‘○○女’ 현상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였고, 이후 2017~2021년 ‘○○男’의 사용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 두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계를 넘어서 개별 표현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에서 집계한 표현의 연도별·성별 목록을 인터넷상에 공개하였다.<sup>5</sup>

## 참고 문헌

- 김관규·김진원 (2010).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제 차이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 연구*, 10(2):39~72.
- 구현정 (1995). 남·여성형 어휘의 사회언어학적 의미. *어문학연구*, 3(0):45~75.
- 민현식 (1996).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4:7~64.
- 손희정 (2005).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14~47.
- 정여훈 (2006). 신문 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 양상. *사회언어학*, 14:85~113.
- 주창윤 (2011).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99~314.
- 황종인 (1995). 한국 신문 기사의 제목. *새국어생활*, 5(4):3~24.

---

<sup>5</sup><https://github.com/suzisuti/news-title-gender>

## 부록

아래의 표에서는 빅카인즈에서 수집한 80,129개 기사를 언론사별로 분류하여 기사 개수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대체로 상위에는 경제지가, 하위에는 지방종합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기사	언론사	기사	언론사	기사
세계일보	8464	충북일보	1191	강원일보	526
매일경제	8428	MBC	1124	전남일보	441
머니투데이	5446	아주경제	1106	YTN	385
헤럴드경제	5045	부산일보	1098	전자신문	323
서울신문	4590	조선일보	935	전북일보	314
문화일보	3138	중부매일	898	광주일보	296
아시아경제	2996	강원도민일보	884	무등일보	288
한국경제	2973	한국일보	884	전북도민일보	285
동아일보	2663	한라일보	875	디지털타임스	235
중앙일보	2576	충청일보	872	제민일보	214
국민일보	2472	영남일보	837	경상일보	213
중부일보	2115	경기일보	766	울산매일	169
경향신문	2010	광주매일신문	735	OBS	127
서울경제	1751	중도일보	730	KBS	105
파이낸셜뉴스	1733	국제신문	706	대구일보	29
충청투데이	1463	SBS	664	경남도민일보	16
매일신문	1422	대전일보	598	한겨레	6
경인일보	1375	경남신문	589	내일신문	5
		합계		80129	

표 .9: 제목에 ‘男’이나 ‘女’를 포함하는 기사 개수 (언론사별)

언론사의 유형에 따라 ‘○○男’와 ‘○○女’의 사용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할하여 분석해 보았으나, 본문에서 서술한 전체적인 경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